

체스

3+4

2026



CONTENTS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우체국과 사람들

2026년 3+4월호(통권 769호)

발행인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발행일 2026년 3월 3일

발행처 우정사업본부 홍보협력담당관(담당 변혜민 044-200-8886 / hyemnin02@korea.kr)

편집인 박철

편집위원 지현근, 오영진, 임종민, 김귀호

기획 한국우편사업진흥원(담당 조현주 02-2036-0824 / hj1911@posa.or.kr)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쥬

04 제13대 우정사업본부장 취임사

06 우정가족 앙케트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낀 나의 취향은?

10 아주 보통의 우정인

도전이 일으킨 일상 속 작은 변화 서울수유동우체국 김은하 주무관

12 우정 포토제닉

함께 도전하고 변화를 맞이한 순간들

14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I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녀의 꿈, 작은 캔버스에서 바람의 섬까지

16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II 어바웃 타임

우체국이 전한 그때 그 광고 시대를 담은 지면 위의 기록

DISCOVERY

18 헬스레터 5분 간격 알람 내 관절 '뚝' 소리

20 컬처레터 아침부터 불타오르네! 모닝 레이브

22 Dear,

24 우체국 옆 공항 섬을 여는 첫 문, 멈추지 않는 제주의 심장 제주국제공항

26 우체국 트립I 마음도, 소식도 '맨드롱 또뚝'하게. 제주우체국

30 우체국 트립II 하얀 풍차와 함께 즐기는 드라이브 제주 신창풍차해안도로 외

32 우체국 행복나눔 소식 봉사의 문턱을 낮추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

RECOVERY

이 코드는 활자가 소리로 전환되는 '보이스 아이'입니다. 인쇄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저시력인을 위한 것으로 아이엠펙 설치 후 카메라로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든 음성으로 <우체국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6 우정 포커스 제14기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 발대식

38 나만 몰랐던 우체국 서비스 보는 재미가 한가득! 2026년 기념우표 17종 발행

40 우체국 핫클립

42 우정 카툰

44 우체통 앞에서

46 POST NEWS

48 우정 알림장

50 POST EVENT

POST-COVERY



postnews.kr <우체국과 사람들> 웹진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의 오늘을 연결하며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한국우정

제 13
대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존경하는 우정가족 여러분,

저는 제13대 우정사업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조직이 부여한 역사적 소명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전국 우체국에서 고생하시는 우정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한국우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조해근 전임 본부장님과 광병진 본부장 직무대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만여 우정가족 여러분,

현재, 우편사업은 IT 발달 및 민간경쟁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직성 비용 구조에 따라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은 취약한 수익기반의 영향으로 이익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지속된 열악한 재정 여건은 위기극복을 위한 진솔한 대화마저 어렵게 만들고 체념의 DNA가 싹트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단편적인 현안을 처리하는 관리자를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구성원과 소통하고 조율하며 우정가족 모두를 연결하는 역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현장에서 우정가족과 위기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며 미래방향 등 열린 주제들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고민함으로써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한데 모아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국민의 오늘을 연결하며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한국우정’을 구현하기 위해 4대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첫째, 우정사업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튼튼한 사업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우정사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자문을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각각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혁신하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이해와 동참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우편사업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우체국 네트워크 장점을 활용하여 수익성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집 근처 우체통과 편의점 등에서도 소포 등을 접수하는 등 고객 결의 사업구조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융사업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 설계와 현장의 영업력 지원을 통해 채산성을 높이고 자산 운용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이익을 확대하는 등 우편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AX 프로젝트 추진 및 법제 정비 등을 통해 우정사업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수많은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통상 위주의 집중국과 금융 온라인망 등 물류·금융 프로세스는 그 소임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인 오늘날에는 AX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갖춰 국민에게 한결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AI 기술을 적용한 소포 중심의 수도권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기반으로 금융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대대적인 시스템 혁신 로드맵인 ‘AX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요금책정·재정·시설투자 및 신규 사업 진출 등 우정사업 핵심 분야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법제 정비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이익에서 적자 보전 및 시설 재투자 등을 담은 법안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행복을 위해 민생 접점의 공적 플랫폼을 구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우체국 네트워크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강조하며, 범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위탁 사업을 발굴·확대하도록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에 기여하며 국민 실생활을 밀착 지원해 주는 특화서비스를 발굴하고, 국가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우체국을 범부처 공동이용 창구로 활용하는 등 국민 행복을 연결하는 우체국으로 다 같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다 함께 조성해 나갑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사분야는 단순히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지향의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열정과 성과가 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사 간 투명하고 끊임없는 대화로 조직현안의 해결책을 마련하며, 우수정책 발굴과 함께 묵묵히 열성을 다하는 직원 포상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정가족 여러분,

사람과 사람, 실물과 민생, 국민과 정부를 서로 연결해주는 우리의 본업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자랑스러운 우정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만여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마다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자랑스러운 우정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끝으로 그간 성심껏 뒷바라지해 주신 직원 가족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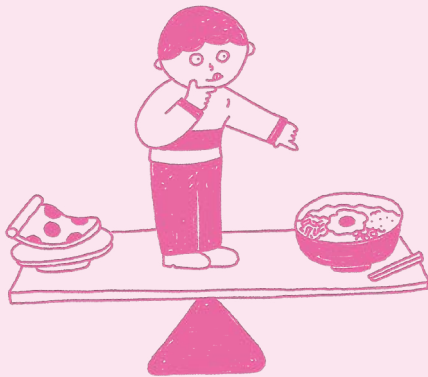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달라진 요즘 취향 리포트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낀 나의 취향은?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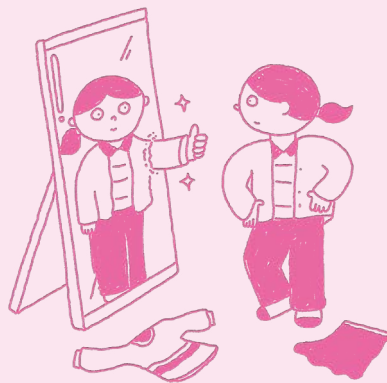
속 편한 하루를 위한
따뜻한 한 끼, 음식 취향



우정가족들이 가장 많이 변했다고 답한 분야는 바로 음식 취향이였다. 예전에는 맛없다고 느꼈던 음식이 어느새 최애 메뉴가 되고, 좋아하던 맵고 짜고 달달한 음식은 이제 속에서 받아주지 않게 되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대신 나물의 참맛을 깨닫고, 담백하고 스승한 맛의 매력에 빠졌다는 우정인들! 한식 위주로 취향이 바뀌었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다!

2위

오늘의 *OOTD를
소개합니다. 옷 취향



출근길, 거울 앞에서 고민하는 오늘의 옷차림이 달라졌다는 답변도 많았다. 최신 유행을 좇기보다 편안함과 나만의 스타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우정인이 많았다. 자꾸만 손이 가는 그 옷이 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듯, 달라진 출근룩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취향을 발견하게 된다.

*OOTD : 'Outfit Of The Day'의 약자로, 오늘 입은 옷차림-오늘의 패션을 뜻한다.

3위

나만의 감성이 가득 담긴
플레이리스트, 음악 취향



출퇴근길, 우리의 감성을 채워주는 플레이리스트가 달라졌다는 답변도 눈에 띈다. 최신 인기곡을 즐겨 듣던 내가 어느새 과거의 향수를 담은 음악을 찾게 되고, 전에는 즐기지 않던 트로트를 흥얼거리게 되었다는 답변까지 있었다. 잔잔하게 인생을 위로하는 노랫말을 따라 듣다 보니, 확연히 달라진 플레이리스트가 완성되었다.

#오늘한끼

#한식취향

#속편한식사

#OOTD

#스타일변화

#출근룩

#나의플리

#감성충전

#출퇴근BGM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취향도 빠르게 변하는 중이다. 나의 요즘 취향은 어떤 모습일까. 먹는 것부터 듣는 음악, 하루를 보내는 방식까지. 우정가족들의 취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직접 물었다.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JUNO

설문기간 : 2026. 1. 16.~1. 30.
응답자 수 : 947명
해당 설문조사는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위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한 관심,
운동 취향



예전에는 흥미롭지 않았던 주제가 나 이 들며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건강 과 운동을 향한 관심이 증가하며 운 동 자체가 취미이자 취향이 됐다는 답 변도 많았다. 단순히 다이어트가 목 적이 아닌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실천 하게 되고, 고강도 운동보다는 천천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게 된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5위

나를 표현하는 컬러 팔레트,
색깔 취향



좋아하는 색만큼 나를 분명하게 드러 내는 취향도 드물다. 색깔 취향이 달 라졌다는 답변도 눈에 띈다. 화려하고 밝은 유채색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우 정인이 있는가 하면, 옷장이 어느새 검 은색으로 가득 찼다는 우정인도 있었 다.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빨간색과 갈 색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답변은 우리 가 어느덧 우체국에 깊이 물들어 버렸 음을 보여준다.

6위

세상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
생각 취향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답변도 이어졌다. 빠 림보다는 여유를, 욕심보다는 배려를 선 택하게 되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눈길이 머무는 순간마다 스스로 달라졌 음을 느낀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화부터 냈을 일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넘기게 되었다는 답변까지. 인 생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에도 분명 저 마다의 결이 담긴 취향이 존재한다. 🌈

- #건강한삶
- #헬스
- #러닝
- #색깔취향
- #옷색깔
- #소품컬러
- #생각취향
- #여유로운마음
- #인생태도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낀 나의 취향은?



1

가평우체국

최윤정

음식 취향!
예전엔 햄버거, 피자
같은 느끼한 걸
좋아했는데
이젠 따뜻한 한식이
좋아요!



4

서울성내동우체국

왕현진

예전에는 검은색이나
회색 등의 무채색 계열
의 옷을 많이 입었는데
나이 들수록 눈에 띄는
밝은색 옷들을
선호하더라고요^^



2

안도우체국

양연선

어릴 땐
이해할 수 없었던
가지나물의 참맛을
알아버렸습니다.



5

대구수성우체국

전경희

나도 모르게
트로트 가요를
흥얼거리고 있는 나!
트로트가
좋아지고 있어요!



3

우정인재개발원

김선미

예쁘고 불편한 옷에서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옷으로 달라졌어요.
옷장도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출근
준비 시간도 절약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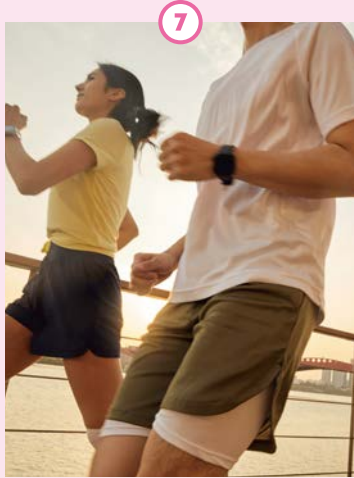


6

익산영동우체국

김혜현

예전에는 막 신나고
흥이 나는 노래들이
좋았다면,
이제는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잔잔하고
부드러운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7

강원지방우정청
 # 장연옥
 취미활동,
 기존엔 음주나
 휴식이었다면
 최근엔 건강을 생각한
 운동과 같은 취미로
 달라짐!



10

우정정보관리원
 # 손호성
 검정 아니면
 하얀색만 선호하던
 내가 점점 빨강, 파랑,
 노랑과 같은
 원색을 좋아하게 됨.



8

광주동림동우체국
 # 김경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11

김해관동우체국
 # 전동엽
 산, 강, 꽃, 나무,
 안개 등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함



9

양양우체국
 # 노화준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우체통 색깔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2

국제우편물류센터
 # 임정하
 예전에는 화내던 일도
 이제는 “그럴 수 있지”
 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검정색 계열의 옷을
 주로 입었는데
 이제는 빨강이
 좋아요^^;



도전이 일으킨 일상 속 작은 변화

서울수유동우체국 김은하 주무관



서울수유동우체국 김은하 주무관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R을 촬영하면 영상이 나타납니다.

작은 도전은 일상을 바꾸고, 그 변화는 삶의 폭을 넓힌다. 어느덧 4년 차 우정인이 된 김은하 주무관은 우체국 직원으로 살아오며 겪은 삶의 긍정적인 변화부터, 올해 새롭게 도전한 ‘우디’를 통해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을 가까이에서 맞이하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이대원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수유동우체국에서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년 차 우정인 김은하입니다. ‘아주 보통의 우정인’ 코너를 통해 우정인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Q. 서울수유동우체국의 변화와 특징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서울수유동우체국은 리모델링을 거쳐 2024년 11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타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합류해 이전 모습은 잘 알지 못하지만, 방문하신 고객님들께서 “전보다 훨씬 넓고 환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변화를 실감합니다. 깨끗하고 밝아진 공간이 우체국의 신뢰도까지 높여주는 것 같아, 저 역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제14기 ‘우디’로 선정되셨는데, 지원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제 14기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 일명 ‘우디’ 최종 13인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전을 통한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어 우디에 지원했어요. 창구 업무를 중심으로 약 4년간 근무하면서 우체국의 다른 역할과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고, 이를 직접 경험하며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Q.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로서 꼭 알려주고 싶은 우체국의 모습이 있다면요?

흔히 우체국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 같지만, 소포를 부치는 학생들도 많이 방문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있어서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오십니다. 또한 신뢰도 높은 국가기관으로서 많은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어요. 우체국의 친근함과 공익·공공성을 젊은 세대에게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3+4월호 주제가 ‘변화와 도전’인데요. 최근 일상에서 겪은 변화와 도전의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올해부터 새벽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수·금 오전 5시에 기상해 6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이 컸지만, 지금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소중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수영하는 동안 잡념이 사라져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체력 관리와 생활 리듬을 잡는 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작은 도전입니다. 🏊

Q. 우정가족이 되고 나서 ‘이건 정말 달라졌다’라고 느낀 일상의 작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체국에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시다 보니, 일터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돕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길을 묻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어려워하실 때 먼저 다가가 도움을 드리곤 하는데요. 가끔 ‘고객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배어 밖에서도 무심코 튀어나올 때면 혼자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Q. “우체국 직원이 되길 참 잘했다”라고 뿌듯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의 작은 안내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한번은 주소 확인 과정에서 고객님께 다시 정확한 정보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덕분에 중요한 우편물이 무사히 도착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체국 업무 하나하나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과 약속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체국 직원이라는 역할이 제 일상과 마음가짐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도전하고 변화를 맞이한 순간들

반복되는 일상에도 특별한 순간은 늘 존재합니다.
함께 도전하며 맞이한 그 순간들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록이 됩니다.
우정인의 도전과 변화, BEST 컷 6장을 소개합니다.



청주우체국 전예숙

생애 처음으로 2025년 대청호 마라톤대회에 도전했습니다!
청주우체국 직원들이 함께해서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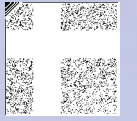
부산시하우체국 진주영

두려움을 넘는 순간, 아이는 한 뼘 더 자라납니다.



영동우체국 양하나

2025.12.1. 추풍령우체국 개국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리는
빨간 우체국입니다.



※ 지면 관계상 아쉽게 게재하지 못했지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향천우체국 홍선주

“도전은 계속, 변화는 진행 중”

2024년 계리직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고,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동기들입니다. 긴 시험 준비 끝에 찾아온 합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 시기가 우리에게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빠른 ‘변화’였습니다.



피주은정동우체국 윤미리

동기 4명이 또래라 같이 변화하고 같이 도전합니다!
김치 시즌 전 지리산으로 첫 동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규암우체국 전정아

2025년도 충청지방우정청에서 진행한 걸기 챌린지 도전 사진입니다. 그동안 출퇴근하기 바빠 마을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챌린지 덕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규암이라는 예쁜 마을을 둘러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도전이었습니다.



우정 포토제닉 참여 방법 5+6월호 주제: 성장·화합

1. 동료, 친구, 가족과 함께한 ‘성장’과 ‘화합’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

※ 과거 사진도 환영합니다! (단, 인물 포함 필수)

2. 사진과 함께 짧은 코멘트를 덧붙여 사연을 신청한다.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정 포토제닉
참여 바로가기



소녀의 꿈, 작은 캔버스에서 바람의 섬까지

- 전 우표 디자이너 모지원 -



세상에서 가장 작은 캔버스,
바로 우표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지만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
때로는 온 우주까지 담아낸다.
그 공간을 채우던
모지원 전 우표 디자이너.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녀를 만나보았다.

글. 강정태 사진. 김성재



모지원 전 우표 디자이너 인터뷰가 실린
《우체국과 사람들》 2015년 6월호

영화 같았던 19년, 우표 디자이너의 삶

10대 시절 그녀의 꿈은 우표 디자이너였다. 우표 디자이너에게 편지를 보내 어떻게 하면 우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현직 디자이너가 몇 안 되는 매우 희소한 직업이었기에, 그 문턱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취업 문처럼 느껴졌다. 꿈은 이루어졌고, 19년 동안 우표 디자이너 삶을 살았다. 그 시간은 한 편의 영화 같았다. 국내외 다양한 이슈를 한 장의 우표로 풀어내려고 안간힘을 쓸 때는 호러 영화를 찍는 듯했다. 어느 날은 초콜릿처럼 달콤한 로맨틱 영화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또 다른 날은 한 시대의 역사를 담아내는 장대한 스케일의 대서사시를 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제주경관 디자이너의 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외국 유학을 떠났다. 세상을 향한 이해가 깊어질 무렵,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왔던 제주에서의 삶을 결심했다. 제주로 이주한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디자인 팀장이 된 것이다. 제주가 보낸 러브레터를 받은 것 같았다. 우표 디자인이 평면의 예술이라면 도시 디자인은 입체의 예술이었다. 건축, 경관부터 공공 디자인, 상징물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업무는 우표 디자인 못지않게 흥미로웠다. 전직 우표 디자이너로서 쌓은 세밀한 감각은 경관 디자인 업무를 더욱 심도 있게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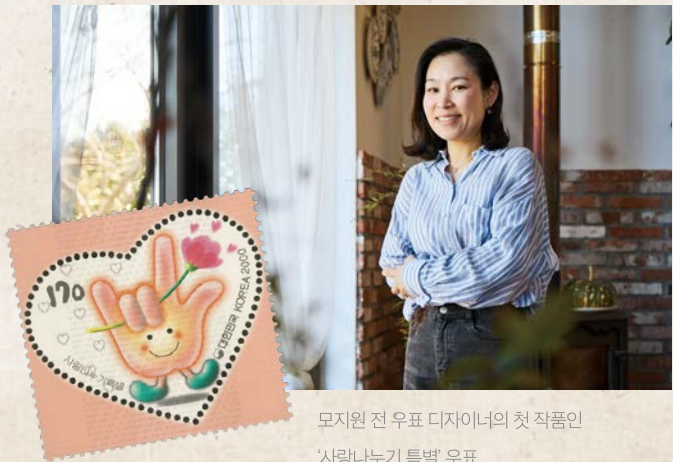
햇살 좋은 굴밭 앞에서 인절미, 백설기와 함께

일곱 마리의 가족, 나누며 사는 삶

모 팀장이 사는 곳은 제주 도심에서 버스로 한 시간이나 걸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어느 날 주인 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집으로 찾아왔고, 그녀는 기꺼이 녀석을 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안쓰러운 유기견들을 하나둘 입양하다 보니 어느덧 일곱 마리가 한 가족이 됐다. 쉬는 날엔 작은 굴밭을 일구며 건강한 삶을 일궈나간다.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정기적인 헌혈도 시작했다. 지난해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30회 유공패 은장을 받았다. 앞으로 목표는 50회를 달성해야 받는 금장이다. 여느 여자들처럼 빈혈기가 있어서 퇴직 전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모 팀장은 말했다.

마음 캔버스에 담은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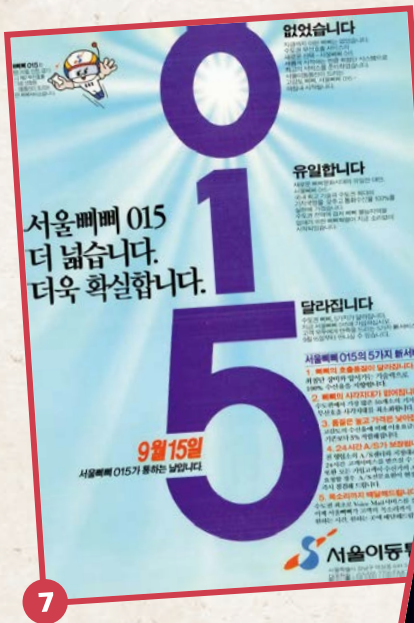
제주를 우표에 담는다면 무엇을 채우고 싶으냐고 물었다. “제주의 멋진 풍광도 좋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제주 사람을 담고 싶어요. 제가 제주에 살면서 만났던 친절함 눈빛들, 한겨울에도 붉은 꽃이 피는 아국적인 풍경, 그 안에 녹아든 제주 43의 역사와 독특한 해녀 문화도 그려 넣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캔버스에서 시작된 소녀의 꿈. 이제 그 소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때로는 정겹고 때로는 사랑스러운 선과 면. 그리고 따뜻한 제주의 색. 마치 그녀는 제주가 보낸 러브레터에 답장을 쓰는 듯했다. 📧



모자원 전 우표 디자이너의 첫 작품인 '사랑나누기 특별' 우표



창간 80주년을 맞이한 우체국 사보 속 수많은 광고에는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우편과 금융, 다양한 우체국 서비스를 알리던 광고부터 공익 캠페인, 민간 기업 광고까지. 한 장의 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그 시절 사람들의 생활과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다. **글. 편집실 자료. 우체국과 사람들 홈페이지**



7



8



9

- ① 1988년 12월호
- ② 1987년 1월호
- ③ 1971년 1월호
- ④ 1986년 8월호
- ⑤ 1991년 11월호
- ⑥ 1994년 5월호
- ⑦ 1993년 9월호
- ⑧ 2004년 12월호
- ⑨ 1994년 3월호

과거 우체국 사보에 실린 광고들은 다양한 우체국 서비스 광고부터 ‘서울타워 광고’, ‘전화번호부 광고’,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등장한 ‘대한항공 광고’, 각종 통신서비스 광고까지 더해지며 한 시대의 풍경을 담아냈다. 매년 달라지는 광고의 흐름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의 발전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지면 위에 그대로 기록한 셈이다.

한편 사보에 실린 공익광고에서는 우리말 사용 권고,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둔 희망과 단결의 메시지, 효(孝)의 가치 등 당시 사회가 지향했던 방향과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진다.

우체국 사보에 실린 광고들은 우체국이 제공한 서비스의 기록이자 우리 일상의 작은 역사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아침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5분', 스트레칭하다 들리는 '뚝' 소리. 무심코 반복하는 이 작은 순간들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건강 신호가 담겨 있다. 피로의 원인부터 관절의 상태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몸의 리듬과 컨디션을 말해준다. 알아두면 한층 더 건강해지는, 일상의 사소한 습관이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정리. 편집실



참조

만성 피로의 늪... '5분 간격 알람' 때문?, 헬스조선, 2022. 6. 20.

알람 끄고 5분 더.. 잠깐 더 자면 좋을까? [굿모닝 건강], 파이낸셜뉴스, 2019. 11. 20.

청년도 '뚝' 소리 나는 관절, 관절염일까 [그랬구나], 쿠키뉴스, 2023. 9. 11.

Cracking Joints: Why Your Joints Pop and When You Need To Worry, Cleveland Clinic, 2023. 10. 30.



알람 끄고 5분만 더... 피로를 키우는 원인!

7시에 일어나야 하는 사람이 6시 40분부터 울리는 알람에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5분만 더...” 하고 다시 잠드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5분만 더’가 반복될수록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확률은 높아진다.

그 이유는 바로 ‘수면 관성(Sleep Inertia)’ 때문이다. 수면 관성이란 잠에서 깬 직후에도 뇌가 완전히 각성하지 못해 멍하고 졸린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서 수면 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쉽다. 보통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날 때 수면 관성이 생기는데, 여러 번 울리는 알람으로 인해 자고 깨기를 반복하면 깊은 수면과 얇은 수면 사이를 오가게 된다. 그 결과 수면 주기 한가운데에서 깨어나게 되어 비몽사몽한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은 생체 시계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시끄럽고 큰 알람 소리에 의해 억지로 잠에서 깨게 되면, 각성 호르몬의 분비와 생체 리듬에 혼란이 생기고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알람은 여러 개를 맞추기보다 하나만 설정하고 바로 일어나는 습관이 훨씬 건강한 선택이다.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 바로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이 하루의 컨디션을 크게 좌우한다.

스트레칭할 때 나는 ‘뚝’ 소리! 이유는?

손가락을 세게 누르거나 꺾을 때, 혹은 스트레칭을 할 때 목이나 허리 등에서 ‘뚜두둑’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아프지는 않지만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이 소리에 혹시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걱정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소리가 대부분 정상적이고 흔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관절을 보호하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관절 내 활액에는 산소와 질소 같은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몸을 움직일 때 이 중 질소가 빠져나오며 소리가 나는 경우다. 둘째, 뼈의 움직임을 돕는 인대와 힘줄이 이동하면서 서로 마찰하거나 뼈를 넘을 때 소리가 날 수 있다. 셋째, 관절 속에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던 피부나 근막, 근육 조직이 분리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리는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정상이다. 하지만 ‘뚝’ 소리와 함께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해당 부위가 붓고 붉게 변한다면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 등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관절 소리가 자연스럽게더라도 일부러 관절을 꺾는 습관은 주의해야 한다. 인대와 힘줄이 느슨해져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관절 소리가 더 커지거나 잦아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오랫동안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자극을 피하고, 근력운동과 스트레칭 등 올바른 방법으로 강화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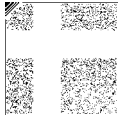
CULTURE

아침부터 파티오를 모닝 레이브



©서울모닝커피클럽(SMCC) 2022. 24. 6

뉴욕 브루클린의 한 카페는 오전 7시부터 분주하다. 출근 복장의 직장인들이 커피를 손에 든 채 DJ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런던에서는 베이커리 문이 열리자마자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베를린과 코펜하겐에서는 러닝 크루가 달리기를 마친 뒤 함께 커피를 나누며 하루를 연다. 이처럼 출근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한 새로운 파티 문화는 '모닝 레이브(Morning Rave)'라는 이름으로 확산되며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서울모닝커피클럽(SMCC)



©서울모닝커피클럽(SMCC)

아침을 깨우는 새로운 리듬, 모닝 레이브

모닝 레이브는 아침을 의미하는 ‘Morning’과 광란의 파티를 의미하는 ‘Rave’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말 그대로 이른 아침에 열리는 열정적인 클럽 파티를 의미한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에 ‘#morning rave’, ‘#coffee rave’를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이 쏟아지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모닝 레이브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morning rave seoul’이라는 태그가 따로 생겼을 정도다.

여기서 모닝 레이브는 단순히 대낮에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침 일찍 모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요가를 하거나 함께 러닝을 즐기는 등 하루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되고 있다. 모닝 레이브의 시초는 뉴욕에서 시작된 데이브레이커(Daybreaker)로 볼 수 있다. 이 파티는 이른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요가, 명상, DJ 세션을 결합해 ‘술 없는 레이브’라는 개념을 대중화했다. 최근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형태가 대형 이벤트를 넘어,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아침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파티가 특별한 날의 소비가 아니라, 평일 아침의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국내에서도 ‘서울모닝커피클럽(SMCC)’ 같은 커뮤니티가 등장하며, 도시인의 아침을 깨우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닝 레이브로 체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은 세 가지 변화와 맞닿아 있다. 첫째는 음주 중심 사교 문화의 약화이다. 특히 젊은 세대

는 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며, 커피와 논알코올 음료는 새로운 파티 문화의 연료가 되고 있다. 둘째는 웰니스의 문화적 재해석이다. 웰니스는 더 이상 관리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되고 있다. 즐겁지 않은 웰니스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모닝 레이브는 웰니스를 세련된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화되었다. 셋째는 출근 전 시간의 전략적 가치 상승이다. 아침의 감정 상태가 하루 전체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출근 전 시간은 더 이상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닌 하루의 리듬을 설계하는 핵심 구간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아침을 소비하는 새로운 시장

모닝 레이브는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유행을 넘어, 시간대(Time Slot)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많은 브랜드와 서비스는 저녁과 주말을 핵심 접점으로 삼아왔지만, 이 트렌드는 출근 전 아침 시간대를 새로운 프라임 타임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파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을 뿐. 모닝 레이브는 밤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을 분산시켜 일상 속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과잉과 탈진의 리듬 대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활력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출근 전 커피잔을 들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이 풍경은 오늘날 도시인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일탈이자, 아침을 다시 문화의 무대로 되돌려 놓은 변화이지 않을까? 🚀



©서울모닝커피클럽(SMCC)





안녕, 봄



우정사업본부 X KAC 한국공항공사

사보 협업 프로젝트

섬을 여는 첫 문, 멈추지 않는 제주의 심장 제주국제공항

2025년 역대 최다 국제선 이용객 301만 명을 돌파한
제주국제공항. 심 없이 사람과 계절을 실어 나르는, 제주의
가장 활기찬 관문이다. 이제 눈부신 제주의 봄빛을 따라 길을
나설 차례. 한 손엔 책을, 한 손엔 꽃을 쥐고서 제주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글. 강은주 사진. 한상무

백만 평 대지 위에 펼쳐지는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의 하루는 역동적이다. 동남아와 일본, 중국을 잇는 주요 지정학적 위치에서 여행자가 제주를 느끼고, 맛보고, 누리는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메이플 스토리’ 등 브랜드 팝업스토어부터 지역 특산품 판매 공간 ‘헬로 제주존’까지, 세계와 로컬 문화를 연결하는 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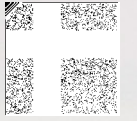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국제선 여객 301만 명을 기록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다. 특히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제주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고, 12월 제주~후쿠오카 노선이 복항하며 하늘길이 한층 넓어졌다. 아시아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이다.

공항은 제주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여운이다. 제주 로컬 브랜드 ‘우무’의 공항 한정판 푸딩 앞에 늘어진 줄, 현대

적으로 재해석된 해녀와 돌하르방의 실루엣,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한라산의 위용, 그리고 그사이를 채우는 설렘의 순간들. 제주국제공항은 여행이 시작되는 곳을 넘어 여행 그 자체다.

책 들고 떠나는 봄날 제주 산책 표선 바다, 유동룡미술관

백사장 위로 푸른 하늘과 바다가 층층이 흘러 거대한 색면회화를 이룬다. 서귀포 표선 해변에 쏟아지는 봄빛은 이토록 찬란하고, 그래서 서럽다.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중산간 마을 일대에서 벌어진 무차별 토벌 작전은 무고한 섬사람들을 폭도라는 명목으로 몰아 붙였다. 미처 몸을 숨기지 못한 주민들은 표선 바다의 모래사장인 한모살에 끌려와 희생당했다. 제주43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밤사이 썰물



QR 코드를 스캔하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우체국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표선해수욕장

위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작별하지 않는다》 | 한강 | 문학동네

유동룡미술관

위치 제주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906-10

📖 《이타미 준나의 건축》 | 이타미준 | 마음산책



에 끌려 가서 찢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라고 묘사된 학살지가 바로 이곳이라 짐작하는 이유다. 표선도서관 옆 빈터, 조출한 추모비와 동백나무 몇 그루가 가만히 서서 참혹한 시절을 보듬는다. 기억하고, 기도하는 제주의 봄이다. 어떤 삶은 예술이 된다. 일본에서 태어나 유동룡이라는 한국 이름을 고수하며 세계와 인간, 자연의 본질을 탐구한 재일 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의 인생이 그렇다. 수필집 《이타미 준나의 건축》을 펼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을 건축의 본령이라 믿고 몸소 실천한 그의 사상과 철학을 마주한다. 유희화 건축가는 아버지 이타미 준의 조형 언어를 반영한 유동룡미술관을 설계해 그의 건축 세계를 기리고, 회화·서예·조각 등 그가 사랑한 수집품과 서적을 한자리에 향유하도록 했다. 돌과 풀과 바람이 시시각각 자아내는 정원의 풍광, 깊고 감미로운 차향, 은은한 먹빛에 물든 공간이 관람객을 깊은 사유의 시간으로 이끈다. ✈





마음도, 소식도 ‘맨도롱 또똔’하게.
제주우체국



제주우체국은 단순히 우편물을 발송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말과 행동으로 그 가치를 실천해 나간다.
덕분에 제주우체국이 말하는 우체국의 역할과 가치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성재, 제주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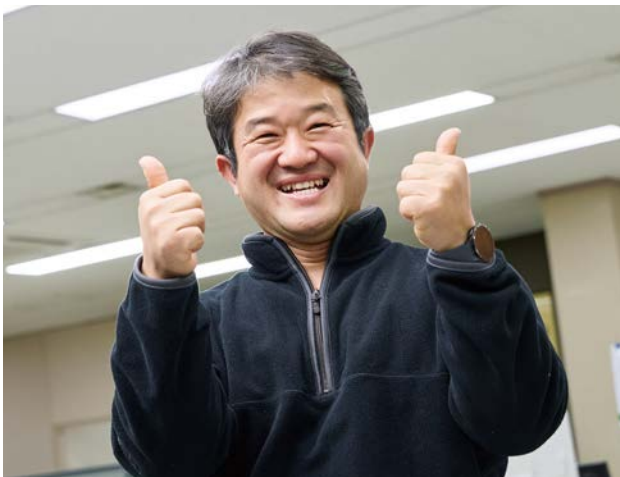
끈끈한 동료애로 뿌리내린 제주우체국

1902년 8월 15일 제주우체사로 시작해 1988년 청사 개축을 거치며 100년 넘게 제주 땅에 뿌리내린 제주우체국. 1997년에는 제주체신청과 분리되며 ‘제주우체국’으로 새롭게 출범했고, 2003년에는 소포물류센터를 신설해 물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는 우편물류과, 영업과, 경영지도실로 구성되어 도내 21개 소속국과 도서 지역 2곳을 포함한 5곳의 집배센터를 아우르며, 우편·금융·보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약 40명의 직원이 고객 응대부터 시설 관리, 업무 지원까지 다양한 실무를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업무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서로를 돕는 끈끈한 동료애가 제주우체국의 가장 큰 자랑이다.

또 다른 명물은 청사 주차장 내에 자리한 울창한 녹나무 한 그루. 수령이 약 300년에 달하는 이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제주우체국이 소중히 관리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상징적인 존재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주는 강풍이 잦고 재료 수급이 어려워 기와지붕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주우체국 바로 옆에는 조선 시대 제주 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 관아’가 있어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진 운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300년 된 보호수는 제주우체국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살아 있는 증인 같은 존재랍니다.”

제주우체국의 맥가이버라 불리는 김형찬 주무관



제주우체국 주차장 내 자리한 300년 된 보호수

그리고 또 한 사람, 제주우체국의 또 다른 자랑은 ‘제주우체국의 맥가이버’라 불리는 김형찬 주무관이다. 서랍 수리부터 문고리 교체까지, 사소해 보이지만 업무 효율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한다. 또한 현장의 불편함을 꼼꼼히 관찰해 스스로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에 옮긴다. 번뜩이는 기지와 묵묵한 성실함으로 동료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의 태도는 깊은 신뢰를 얻으며 제주우체국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봉사로 표현하는 마음, 노력이 보여주는 성과

고객 만족과 업무 성과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제주우체국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캠페인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KCTV 제주방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집배센터 이론차 적재함 뒷면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금융 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우체국의 행복나눔봉사단 역시 분기별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및 국제가정문화원 방문, 해안가 환경정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앞장서고 있다.

봉사에 힘쓰는 직원들의 열정은 눈에 띄는 성과로도 이어



지고 있다. 작년 12월에 진행한 2차 우체국쇼핑 창구 전시 판매에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덕분에 총 112건을 판매하며 1,235천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작년 9월 1차 판매 대비 10.9%의 매출 증가를 거둔 성과다. 인적 성과도 빛났다. 제주연동우체국 소속 윤혜영 주무관은 보험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인정받아 2024년 보험사업 연도 평가에서 전국 금상(2위)을 수상했다. 고객 맞춤형 상담과 성실한 서비스로 높은 신뢰를 받아온 윤 주무관은 2022년 은상, 2023년 동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으로 제주우체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2025년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이어가는 중이다.

말과 행동으로 진짜 소통을 완성하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제주우체국은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단순한 우편 전달을 넘어 직

**세심한 서비스와 배려가
고객에게 진심을 전하는
소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정확한 소통과 친절한 응대로 신뢰를 쌓아가는 제주우체국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KCTV 제주방송과 협업으로 진행한 교통안전캠페인

원 간의 소통,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와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내에서는 ‘소통·이해·존중 캠페인(소이존)’을 통해 관서별 칭찬 언어를 발굴하고 이를 일상화하고 있다.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와 같은 따뜻한 표현은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된다.

또한 제주도 내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접수 시 D+1, D+2 소포를 선택하여 접수 가능하여, D+1 소포로 접수된 우편물은 다음날 육지에 도착하는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주 특산물이나 냉장·냉동 식품 배송이 잦은 지역 특성상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다.

“겨울철 전국에서 기다리는 ‘제주 감귤’ 배송 시즌이면 우편창구는 특히 바빠집니다. 이때 전국 유일하게 운영 중인 익일 소포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제주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기념품과 여행용 캐리어 접수도 많은데요. 직원들이 직접 캐리어 맞춤 상자를 제작해 포장까지 도우며 ‘포장의 달인’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서비스와 배려가 고객에게 진심을 전하는 소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듯, 제주우체국은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최우선 가치인 ‘진심 어린 소통’으로 다가가고 있다. 제주우체국에서 만나는 한 장의 우편물, 한마디의 따뜻한 말, 한 번의 세심한 관심이 모여 진짜 소통을 완성해가는 제주우체국의 하루는 오늘도 활기차게 이어진다. 📧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라이브스튜디오

하얀 풍차와 함께 즐기는 드라이브

제주 신창풍차해안도로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신창풍차해안도로는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해안선을 따라 하얀 풍차들이 줄지어 선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제주도 서쪽 끝을 잇는 해안선과 탁 트인 제주의 푸른 바다, 그리고 나란히 선 풍차들이 어우러져 제주만이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드라이브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은 일몰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 질 무렵 방황해 사진을 남기고 낙조를 감상하며 힐링하는 코스로도 제격이다.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언제 찾아도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바람 따라 돌아가는 풍차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기만 해도, 일상 속에 작은 여유가 스며든다.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김지호

제주우체국이 추천하는 힐링 산책로

송악산 둘레길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송악산은 해안 절벽 위에 자리한 커다란 오름으로, 이곳 정상에 서면 북쪽으로는 한라산, 남쪽으로는 가파도와 마라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제주의 자연을 한 폭의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다.

송악산 둘레길은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산책로다. 비교적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제주의 바다를 느끼기에 제격이다. 잘 정비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 탁 트인 풍경이 어우러져 제주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제주우체국이 추천하는, 제주의 숨은 힐링 명소다.





제주를 대표하는 과일

제주 감귤

겨울이면 꼭 생각나는 과일, 제주 감귤은 이름만으로도 제주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과거에는 임금에게 진상되거나 주변국에 선물로 보내지기도 했을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지금까지도 제주를 상징하는 과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감귤 주산지답게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등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며, 높은 당도와 탄탄한 육질로 그 맛과 품질 모두 인정받고 있다. 서귀포에 위치한 감귤박물관에서는 제주 감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즐길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은 명소다.



청정 제주 바다에서 자란

제주 은갈치

제주에 가면 꼭 맛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가 갈치 요리다. 갈치구이와 갈치조림은 물론, 제주 도민들의 향토 음식인 갈치국까지. 갈치는 제주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그중에서도 은빛 비늘이 살아 있는 '은갈치'는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깊고 깨끗한 청정 제주 바다에서 어부들이 직접 낚아 올린다. 그물 대신 낚시로 잡아 손상이 적고 신선도가 뛰어나며, 살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은갈치는 7월부터 10월 사이인 가을철에 맛이 가장 좋으며, 제주의 재래시장이나 식당에서는 갓 잡은 은갈치를 활용한 다양한 별미를 쉽게 만날 수 있다. 🍴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우체국쇼핑몰에서
제주 특산물을 검색해보세요.
QR 코드를 스캔하면
우체국쇼핑몰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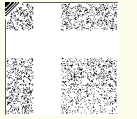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
탁 트인 풍경이 어우러져
제주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봉사의 문턱을 낮추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



유난히 칼바람이 불던 1월의 토요일 아침, 하남 작은프란치스코의집에 우체국 제비 마크가 새겨진 단복을 입은 우정가족이 하나둘씩 들어섰다. 이웃의 하루에 온기를 전하는 이들의 손길은 추위를 녹이는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었다. 글. 편집실 사진. 이대원

작은프란치스코의집에 스며든 온정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하남 ‘작은프란치스코의집’을 찾아 나눔의 온정을 전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7명의 단원은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구역을 나누어 세심한 손길로 공간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청소기와 설거지 소리가 시설 안을 채우자, 이용인들은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봉사자와 시선이 마주치자 이들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한 달에 한 번 봉사단이 찾아오는 날은 이용인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용인 한 명이 봉사 중인 김용환 단원의 손을 잡고 시설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김정일, 이선행 단원은 청소기를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일상 속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남인

식 단원은 이 모습이 익숙한 듯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이들을 지켜봤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한 달 동안 어디에 다녀왔는지를 알려주실 때도 있고, 새로 바뀐 방을 자랑하듯 소개해 주실 때도 있어요. 친근감의 표시인 셈이죠.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용인이 손으로 새로 바뀐 방을 가리키며 안내를 마치자, 단원들은 다시 부엌과 화장실, 공용 공간으로 흩어져 청소를 이어갔다. 장장 3시간에 걸친 대청소 덕분에 시설은 어느새 한층 쾌적한 모습으로 변했다.

청소를 마친 단원들은 이용인들과 함께 모여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노래 부르기와 고리 던지기 놀이를 준비한 단원들은 이용인들과 하나로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성인 지적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인
작은프란치스코의집



QR 코드를 스캔하면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의 봉사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봉사가 이끈 일상 속 변화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의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한 곳을 정해 꾸준히 찾아가며 이용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것이 특징이다. 이영일 단장은 “한 곳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지원하며 이용인과 단원 모두에게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것이 우리 봉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을 이끄는 이영일 단장은 23년 넘게 봉사를 이어 온 창단 멤버이기도 하다.

“2003년, 용인의 성가원에서 마음 맞는 동료들과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성가원이 관리하는 농장의 옥수수, 사과, 매실 농사 등을 주로 도왔죠. 그러다 2008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수녀님 한 분이 작은프란치스코의집으로 자리를 옮기신다는 소식을 듣고 단원들과 뜻을 모아 지금까지 이곳에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장 운영이 중단된 2020년 이후에는 시설 내부 청소와 생활 지원 중심으로 활동 방식을 바꿨다. 일 년에 한두 번은 꼭 이용인들과 나들이도 떠난다. 창단 멤버인 윤화중 단원은 “해마다 몇 차례는 외곽 나들이를 겸한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에버랜드나 레일 바이크가 있는 지역으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단원 가족들도 참여해 이용인 개별 맞춤 1:1 케어를 도왔습니다. 가족들은 봉사의 의미를 새기고, 이용인들은 바깥바람을 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모두에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용인들이 은은하게 내비치는 고마움의 표현이 봉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힌 3년 차 김용환 단원은 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자신도 적지 않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봉사는 도움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봉사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흔히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라고 부르는데, 봉사를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정서적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은 김 단원의 일상에도 스며들었다.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감사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창구에서 우편 접수를 할 때도 더 친절하게 안내하게 되더라고요. 포장이 힘든 어르신을 도와드리거나 사전 접수가 어려운 고객을 직접 지원하는 일도 망설임 없이 하게 됐



봉사단원이 이용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일사불란하게 청소 중인 봉사단원들





습니다. 민원인을 대할 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봉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일상 속 태도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지역 곳곳에 뿌리내린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맞춤형 도움을 주는 조직의 일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과거 우체국 별로 운영되던 ‘우정사회봉사단’, ‘집배원 365봉사단’, 우체국 직원 동호회 등 다양한 봉사 조직을 통합해, 2015년 2월 27일 공식 발대식을 열고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을 출범시켰다.

현재 전국에 분포된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250여 개로, 2024년부터는 5개 유관 기관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우체국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집수리, 생필품 전달, 사랑의 연탄 나눔 등 지역별 필요에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을 비롯한 전국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손길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이웃을 향한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한, 누군가의 하루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나고 세상 곳곳에는 작은 온기가 스며들 것이다. ✂

MINI INTERVIEW



윤준호
작은프란치스코의집
생활재활교사



Q. 작은프란치스코의집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성인 지적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족 공동체 시설입니다. 작은 규모에서 형성되는 안정감과 친밀감을 기반으로, 이용인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지향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곳이지요.

Q.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의 활동은 이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식사 준비와 청소로 이용인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벗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위로와 사회적 활동까지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이용인들이 ‘함께하는 마음’을 느끼며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진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Q. 서울중앙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단원분들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4기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 발대식

설렘과 긴장이 교차한 얼굴들, 조심스레 건네는 인사 속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1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
발대식은 한 해 동안 함께 활동할 우디들이 처음 만나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새로운 출발의 의지를 나누는 자리였다. 낯선 분위기 속에서도 반가운 인사와
웃음이 오가며 이내 따뜻한 공기가 퍼져 나갔다. 글. 백미희 사진. 이대원

국민과 가장 가까운 홍보단, ‘우디’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이하 우디)’는 전국 각지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우정사업의 정책과 서비스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고,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내부 직원 중심의 디지털 홍보단이다. 단순한 홍보 참여를 넘어, 스스로 기획하고 촬영하며 편집까지 주도하는 ‘직원 크리에이터’로 활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14기 우디들은 12월까지 영상과 AI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우체국쇼핑 라이브 방송이나 주요 행사에 모델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우체국의 얼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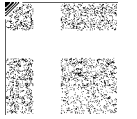
사전 간담회에서는 새로 선발된 우디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이어졌다. 광병진 경영기획실장은 우디들에게 웰컴 키트와 전용 명함을 전달하며, ‘우체국을 대표해 국민과 마주하는 얼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3년 연속 우디로 활동 중인 박미리 주무관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긴 시간 꾸준히 현장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전해온 공로를 격려하며, 후배 우디들의 든든한 롤모델이 되어 달라는 당

부도 더해졌다. 한 참가자는 “웰컴 키트를 받으니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명함인데, 제 모습을 본 뜬 일러스트가 들어가서 더 애착이 가고 소속감이 느껴집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올해 선발된 우디는 본부 보험위험관리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소속 기관에서 모인 13명으로 구성됐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저마다 근무하는 지역은 달랐지만 ‘우체국을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알리자’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다. 자기소개 시간에는 3년 차 베테랑부터 제주 서귀포



광병진 경영기획실장이 3년 연속 우디로 활동한 박미리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6년 제14기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 13명이 선발돼, 지난 1월 30일 '우디' 발대식을 열고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와 전남 신안 증도 등 먼 지역에서 올라온 우디까지 다채로운 얼굴들이 함께했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박철 홍보협력담당관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은 우체국을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소개하는 주인공”이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감각을 발휘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와 현장의 열정이 우체국의 이미지를 더욱 따뜻하게 바꾸어갈 것”이라며 자부심을 북돋웠다.

카메라 앞에서, 진짜 크리에이터로

이날 이어진 영상제작 교육은 트렌드 기반의 콘텐츠 제작법과 AI 활용 기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마친 우디들은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며 촬영 실습에 나섰다. 강의실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앵글을 잡고, 서로 화면을 확인하며 장면 구성을 논의했다. 한쪽에서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에 올려 자막을 입히는 손길이 분주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 위치가 자막이 더 잘 보여요.”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어느새 모두가 ‘크리에이터’로

변해 있었다. 한 우디는 “이론을 듣고 바로 실습하니 훨씬 이해가 잘 된다. 실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프로필 사진 촬영을 끝으로 발대식 일정은 마무리됐다. 카메라 앞에 선 우디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들이 만든 콘텐츠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우체국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벌써 이들의 첫 작품 ‘앙탈 챌린지’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재미있게, 따뜻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만들어질 2026년 우체국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자. 📡



발대식에서 직접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쇼츠 제작 실습에 나선 14기 우디들

보는 재미가 한가득! 2026년 기념우표 17종 발행



기념우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과 사건,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국민 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된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26년 총 17종의 기념우표 발행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기념우표는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며, 우표 한 장에 시대의 관심과 가치, 이야기를 담아냈다. 정리. 편집실



2026년 2월 27일에 발행한 '제주도 오름' 시리즈 기념우표

우표로 전하는 우리의 가치

지난 1월에는 귀엽고 친숙한 '아기 동물' 기념우표 48만 장이 발행됐다. 이번 우표의 가장 큰 특징은 아기 동물을 지칭하는 우리말 고유명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개호주(호랑이 새끼)', '능소니(곰의 새끼)', '둥부레기(송아지)', '애돌(한 살 된 돼지)'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갓 태어난 생명을 세심하게 구분해 이름 붙여온 선조들의 지혜와 애정이 담겨 있다. 이처럼 우표 한 장을 통해 우리말이 지닌 따뜻한 온기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2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제주도 오름' 시리즈가 발행됐다. 제주의 독특한 지형과 풍경을 섬세하게 담아낸 이번 우표는 자연유산의 가치와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의미를 더했다. 제주의 오름을 소재로 한 연속 시리즈를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기록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처럼 기념우표는 우리말과 자연,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배움의 창이 되고 있다.

우표 속에 시대의 취향을 담다

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이 발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와 키덜트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캐릭터를 우표로 담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표를 친숙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에는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는 'K-POP' 아티스트를 소재로 한 기념우표가 발행되며, 7월에는 지난해 최다 관람객 수를 경신한 프로야구 10개 구단을 담은 'KBO 리그' 기념우표와 한국 애니메이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로보트 태권브이' 기념우표가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우표들이 기다리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발행하는 '백범 김구' 기념우표를 통해 김구 선생이 추구한 세계 평화의 철학을 되새기며, 10월에는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탄생 150돌을 기념한 '주시경' 기념우표와 '훈맹정음(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기념우표가 각각 발행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는 단순한 요금 납부 증표를 넘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를 나타내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기념우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와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취향을 담아내고, 역사를 기념하며, 시대를 기록하는 우표. 작은 우표 한 장 속에는 세대를 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



2026년 1월 28일에 발행한 '아기 동물' 기념우표

우체국 핫클립

우체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다면
유튜브·인스타에서 '우체국'을 검색하세요! 출퇴근길처럼 무료한 잠깐의 시간 속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요.

정리. 편집실



우체국 직원들이 앙탈을 부리는 이유는?!

우우우우우우우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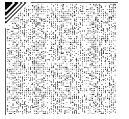
우체국 직원들이 앙탈을 부리는 이유는?!

우체국 설 명절 특별 소통 완료!

안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렇게 앙탈 부리면 앙~돼요~!



영상 바로가기



소중한 순간을 맞춤형 엽서로 특별하게

소중한 순간 특별한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진 한 장과 마음을 담아 전하는 우체국 맞춤형 엽서!
소중한 순간을 오래 남는 추억으로 전해보세요!
접수처 우체국·인터넷우체국(ePOST)·우체국 APP



영상 바로가기



우체국 소포 접수 서비스 | 24시간 접수되는 우체통 소포!

야근 후 밤 10시, 소포 보내야 하는데 우체국은 이미 문 닫고...
그럴 땐 우체통! 이제 우체통으로도 소포 접수가 가능합니다.
밤에도, 주말에도 우체통은 작은 우체국이 됩니다!



영상 바로가기



우체국 옆 공항 청주우체국x청주국제공항

삶을 잇는 손길, 여행을 여는 마음
우체국과 공항이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청주우체국x청주국제공항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우체국과 함께하는 성장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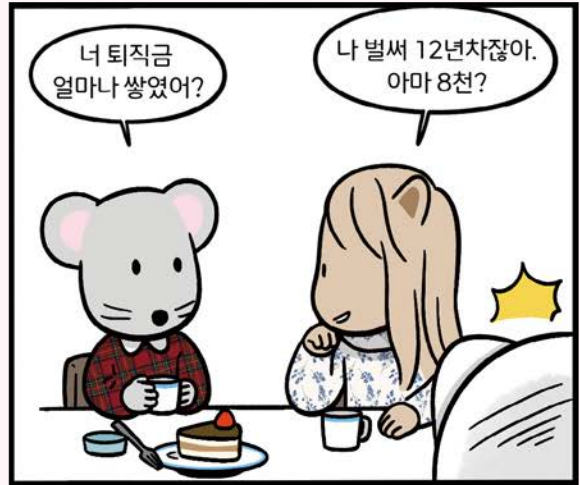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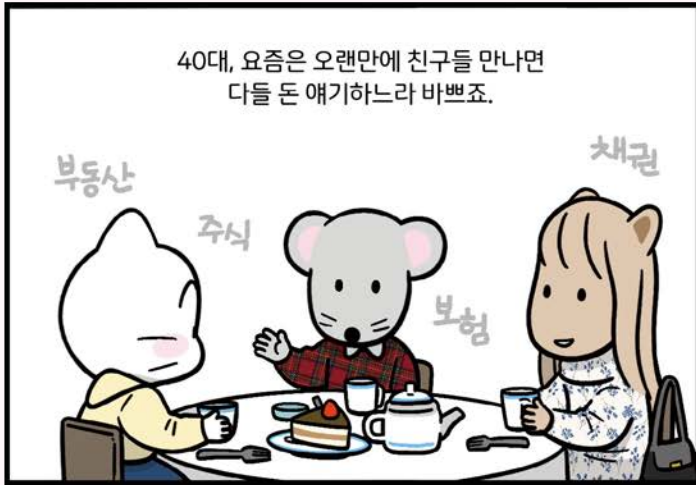
지난 연말, '2025 희망빛이 자란다'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우체국은 아이들의 희망이 자라나는 시간을
조용히, 그리고 든든하게 응원합니다.



영상 바로가기

프리랜서 9년 차, 이제야 퇴직금이?

그림. 몽냥





저처럼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라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노란우산'을 찾아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해 '우체통 앞에서'에 소개합니다.

✉ <우체국과 사람들> 담당자 E-MAIL : hj1911@posa.or.kr

First Story

무인(無人)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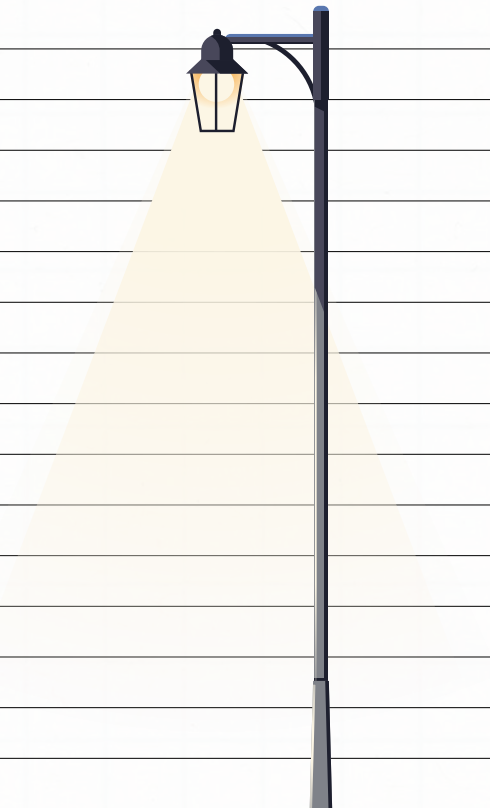
from.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자정의 거리,
사람보다 불빛이
먼저 깨어 있다.

유리 안의 형광등은
피로를 모른 채 환하고,
말 없는 계산대와
눈 감지 않는 카메라가
오늘도 밤을 지킨다.

‘무인(無人)’이라는 이름 아래
느껴지는 외로움은
밤이 깊을수록 더해간다.

도시는 오늘도
말 없는 불빛으로
밤을 버틴다.





Second story

500원

from. 고원빈(전라남도 여수시)



얼마 전 세차장 이용을 위해 2천 원을 500원 동전으로 바꾸면서 예전의 나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릴 적 엄마는 시골에 조그마한 미용실 원장이셨다. 원장이자 직원인 1인 미용사였다.

내가 떠오른 엄마의 모습은 항상 미용 앞치마를 두르고, 아주머니들의 머리를 파마하는 모습이 선명하다.

초등학교가 끝나고 학원 가기 전 미용실에 들러, 손님분들에게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엄마한테는 ‘엄마, 나 500원만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오락실 갔다가 학원 갈게’라고 했다.

손님이 많은 날이면 목소리는 더욱 씩씩해졌다. 그래야 엄마가 500원을 더 쉽게 줄 것 같았다.

그 500원을 가지고 문방구 앞에 앉아 300원짜리 불량식품을 먹고, 100원은 뽑기하고, 100원은 오락실에서 게임을 했다.

얼마 전, 퇴근 후 미용실 원장님과 통화하는데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500원, 500원 하던 놈이

지금 몇 살이라고?’ ‘결혼하고 아이도 있다고? 아따 시간 빠르네잉’이라는 정겨운 소리가 들렸다.

미용실 단골손님의 목소리였다. 2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손님은 여전히 엄마의 미용실에 다니셨고, 여전히 미용실 집 아들내미를 기억하고 계셨다.

아직 엄마는 시골의 미용실 원장이다.

하루라도 찾아오는 손님이 헛걸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 500원을 주시는 엄마의 모습이 선명한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엄마의 모습을 보면 팬스레 마음이 저릿하고 몽클하다. 한동안, 자동차에 있는 500원을 보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던 손님의 모습과 앞치마를 두른 엄마의 모습이 함께 떠오를 것 같다.

Post News

1 제13대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취임

조해근 전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약 다섯 달 만인 지난 2월 13일, 제13대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이 취임했다. 박인환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정사업 수익구조 개선,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 추진 및 법제 정비, 민생 접점 공적 플랫폼 구현, 건강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이상 4가지 과제를 통해 ‘국민의 오늘을 연결하며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한국우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 우정사업본부-관세청, 마약 차단망 구축 협약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지난 2월 10일 서울세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에 집중됐던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해 내륙 주요 물류 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추가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3 2026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을 ‘2026년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특별소통기간 동안 전국 24개 집중국과 3개 물류센터를 최대 규모로 운영했으며,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상 상황에 따른 업무 정지와 신속 대피 등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우편 기계·전기 시설과 차량에 대해서도 안전 매뉴얼에 따라 사전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4 서민들 생활 안정 돕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신상품 출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우체국 생계비 계좌’가 출시됐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250만 원 한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우체국은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5 국립공원 투명 페트병, 우체국망 통해 재활용 된다

지난 1월 28일, ‘국립공원 투명 페트병 우편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국 국립공원에서 분리수거된 투명 페트병이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되어 재생원료 생산업체로 배달되는 자원 순환 체계가 마련되었다. 광병진 경영기획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가치 창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

‘2026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완료

지난 2월 4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16기 우체국예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우체국예금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캠페인 홍보를 위한 전문업체 연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며, 예금 신상품 기획 참여, 온라인(SNS) 활동 수행, 현장 체험 등의 기회를 얻게 된다. 앞으로도 우체국예금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대학생들에게 우체국예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체국예금의 서비스와 캠페인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7

우체국쇼핑, ‘2026년 설 선물대전’ 지역상품 판로 확대

우체국쇼핑은 2026년 설을 맞아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의 우수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은 ‘설 선물대전’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한우·과일·전복 등 인기 설 선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전통시장 업체 상품을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하게 하고, 고객 맞춤형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우체국쇼핑 상품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 우편고객센터(☎1588-1300)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



8

‘노란우산’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입하세요

새해를 맞아 ‘노란우산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노란우산’을 판매하고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전국 2,400여 개 우체국에서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5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2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과 함께 가입 시 최대 0.5%p 우대이율을 주고, 네이버페이 1만 원 상품권도 추가로 지급한다.



9

2025년, 공익사업으로 26만 2천 명 지원

2025년 한 해 동안 우체국 인프라 기반, 소외계층 지원, 미래세대 육성, 지속 가능 친환경 등 4개 분야 14개 공익사업과 공익보험 운영을 통해 총 26만 2,000여 명을 지원했다. 전국의 우체국에 설치된 250여 개 ‘행복나눔봉사단’을 통해 맞춤형 봉사 활동이 이어 나가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확대하며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무료 간병 서비스, 발달장애인 일자리 나눔,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소속·산하기관 소식

1

**우정인재개발원
모든 직원에 AI 교육 도입**



우정인재개발원은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I)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신입 직원 교육 과정에 기초, 실습, 활용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AI) 관련 과정을 도입한다.

또한, '찾아가는 AI 현장 교육'을 확대해 현장의 AI 적용을 지원하고, AI 활용 과정에서의 정보 보안, 콘텐츠 검증,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운영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2

**부산지방우정청
울산서울주우체국 개국**



지난 1월 5일, 울산서울주우체국이 개국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울산서울주우체국은 지상 2층 연면적 1,915㎡ 규모로 2015년 준공되었다. 이후 10년간 울산언양집배센터로 운영되어 오다, 최근 영업 창구를 신규 개설하여 우편 및 금융 업무를 포함한 종합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개국으로 울산역 역세권 일대 지역 주민들은 우편 접수와 금융 업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026년 설 선물대전 홍보 캠페인 실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전자상거래사업처 직원, 우정사업본부 소포전자상거래과,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우디)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내에서 2026년 설 선물대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체국쇼핑은 앞으로도 '생생'과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쇼핑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4

**우체국물류지원단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우수' 등급 달성**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2025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기관의 정보 보안 관리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사이버 위협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정보 보안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으로 지역 제조혁신 속도 낸다

과기정통부, 전북 등 지역에 대형 인공지능 전환 연구 개발(AX R&D)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부총리’)은 지난 1월 26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추진된 사전 검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전북대학교 물리적 인공지능 연구실(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및 실증 시연 확인, 사업 성과 및 지역 인공지능 전환 사업 추진계획 발표,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수요 기반 실증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실증 연구실(실증랩) 개소식 이후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DH오토리드의 이석근 대표, 대승정밀 김장송 대표, 동해금속 서호진 대표, 전북대 김순태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장영재 교수 등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 내

재화를 위한 실행 과제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기반 정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형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제기된 의견을 향후 지역 인공지능 전환 설계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전북대 물리적 인공지능 실증 연구실(피지컬 AI 실증랩)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과 반도체, 이동 수단(모빌리티), 로봇 등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이미 보유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증하여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실증을 통해 검증된 기술이 공정 적용으로 이어지고 산업 전반으로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지역 인공지능 전환과 5급3특 전략을 연계하여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제조혁신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독자 참여

2026 3+4 VOL.769



2026년 1+2월호
정답

- ① 우정총국
- ② (무)우체국보너스팡팡연금보험
- ③ 우체국

EVENT. 1

알쏭달쏭 퀴즈

이번 호를 읽고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총 15명을 추첨하여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지난 1월 30일에 '2026년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14기 우디는 총 몇 명일까요?

1. 9명 2. 13명 3. 23명

② 귀여운 '아기 동물' 4종의 우표가 발행됐는데요. 4종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동부레기 2. 능소니 3. 망아지

③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기념우표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에 발행된다.

1. O 2. X

이벤트 모바일 참여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VENT. 2

체국이를 찾아라!



책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곳에 숨겨진 2명의 체국이를 찾아보세요. 체국이를 발견한 페이지 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EVENT. 3

할 말 있어요

<우체국과 사람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혹은 취재 요청이 있다면 우체국과 사람들 웹진(postnews.kr)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견 채택 시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PC 참여 방법

우체국과 사람들 (www.postnews.kr) 사이트에 접속해 오른쪽 <우체국과 사람들>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클릭해 참여해주세요. 세 가지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참여 기한 2026년 4월 30일(목)

* 이벤트는 웹진에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체국과 사람들>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체통 앞에서'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하여 <우체국과 사람들>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원고 보낼 곳 <우체국과 사람들> 담당자

✉ 메일 hj1911@posa.or.kr 📍 주소 (07245)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83(영등포동 7가) 5층

※ 원고는 가급적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장, 착한가격 우체국보험

든든한



(무)우체국 2504

더간편 건강보험



질병이 있어도, 수술경력이 있어도
질문 두 개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무)우체국 2504

하나로OK 건강종신보험



진단부터 입원, 수술, 통원까지
모든 보장을 하나에 담은 우체국 대표 보험

(무)우체국 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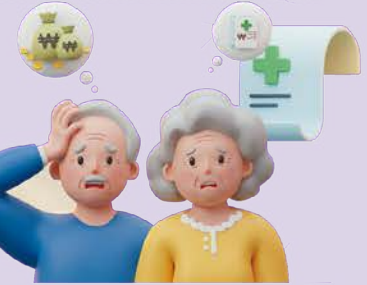
치매요양 간병보험



나이가 많아도 질병이 있어도 가입 가능,
경증치매부터 전부 보장하는 우체국 대표 치매보험

(무)우체국 2511

암뇌심주요 치료비보험



고가의 첨단치료도, 재발·전이로 인한 반복 치료도
치료비 걱정 없고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무)우체국 2511

보너스팡팡 연금보험



팡! 팡! 터지는 **운용보너스와 유지보너스로**
내 연금 적립액도 팡팡~

(무)우체국 2504

파워 적립보험



돈이 생기면 더 넣고, 급하면 꺼내 쓰고,
안정적인 수익까지 보장하는 알찬 저축보험

이 계약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 금융 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최대 갱신나이, 갱신주기 등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당 상품의 개괄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는 보조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50% 지급되고, 암보험 계약일은 보험 가입 후 91일 부터 보장 개시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연금성 보험의 적립금액은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IV로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부리 적절한 금액으로, 신공시이율IV가 변경되면 적립 금액도 달라집니다. •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 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www.epostlife.go.kr / 고객센터 1599-0100 • 승인번호 : 000-251218-962-P610196



《우체국과 사람들》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인쇄 파트너사에서 FSC 인증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우체국과 사람들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COVER STORY

1946년 10월 창간, 올해 80주년을 맞은
《우체국과 사람들》의 표지는
그동안 이어져 온 사보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1970년부터 1994년까지 사용했던
두 번째 제호 《체신》의 1986년 3월호(vol.326) 표지를
재해석했습니다.